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저물가의 가계 특성별 영향 및 시사점
- 가계 맞춤형 물가관리 및 소비진작책 필요

목 차

- 저물가의 가계 특성별 영향 및 시사점
 - 가계 맞춤형 물가관리 및 소비진작책 필요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저물가의 가계 특성별 영향	2
3. 정리 및 시사점	12

Executive Summary

<요 약>

■ 개요

최근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소비자들의 가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로 통계 집계 상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품목별 물가 움직임이 상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소득, 가구원수, 연령 등 가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저물가 현상이 가계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이를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에 가계를 소득분위별, 가구원수별, 가구주 연령별로 구분하고 해당 가구들이 직면하는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 저물가의 가계 특성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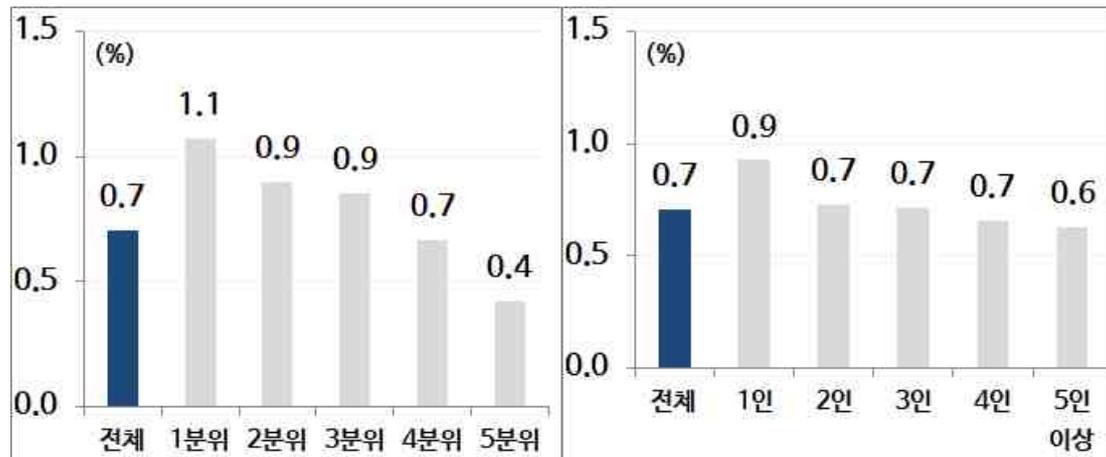
첫째, (소득분위별 영향) 소득이 많을수록 저물가의 수혜를 크게 받았으며, 반면 저소득층의 물가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지출비중)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식료품·주거·보건·통신에,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교통·오락문화·교육에 더 많이 지출했다. 2015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위 가구는 식료품, 주거, 보건, 통신 지출 비중이 높았고, 교육, 교통 지출 비중이 낮았다. 반면 5분위 가구는 교통, 오락·문화, 교육 지출 비중이 높고, 식료품, 주거, 보건, 통신 지출 비중은 낮았다. **(물가상승률)** 2015년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을 추정한 결과, 1분위 1.1%, 2분위 0.9%, 3분위 0.9%, 4분위 0.7%, 5분위 0.4%로 전체 물가상승률 0.7%와 차이가 났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직면하는 물가상승률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4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분위 계층이 직면하는 물가상승률이 5분위 대비 높은 가운데, 1분위와 5분위간 물가상승률 격차가 2014년 0.0%p에서 2015년 0.7%p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여도)**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주류·담배와 식료품 물가 상승 영향을,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교통 물가 하락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 주류·담배의 물가 기여도는 1분위 0.8%p, 5분위 0.4%p, 식료품의 물가 기여도는 1분위 0.3%p, 5분위 0.2%p, 교통의 물가 기여도는 1분위 -0.6%p, 5분위 -1.0%p로 소득분위별 기여도 차이가 컸다.

둘째, (가구원수별 영향)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저물가의 수혜를 크게 받았으며, 반면 1인 가구의 물가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지출비중)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일수록 식료품·주거·보건에,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통신·교육에 더 많이 지출했다. 2015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1~2인 가구는 식료품, 주거, 보건 지출 비중이 높고, 교육, 통신 지출 비중이 낮았다. 반면 4인 및 5인 이상 가구는 통신, 교육 지출 비중이 높고, 식료품, 주거, 보건 지출 비중은 낮았다. **(물가상승률)** 가구원수별 물가상승률을 추정한 결과, 1인 가구 0.9%, 2~4인 가구 0.7%, 5인 이상 가구는 0.6%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0.7%와 차이가 났다. 즉,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직면하는 물가상승률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4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인 가구가 직면하는 물가상승률이 5인 이상 가구 대비 높았으며, 1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간 물가상승률 격차는 0.2~0.3%p 수준을 유지했다. **(기여도)**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는 주류·담배,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는 교육 물가 상승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으며, 교통 물가 하락 영향은 유사했다. 주류·담배의

물가 기여도는 1인 가구 0.8%p, 4인 및 5인 이상 가구 0.5%p, 교육의 물가 기여도는 1인 가구 0.0%p, 4인 및 5인 이상 가구 0.3%p로 가구원수별 기여도 차이가 컸다. 교통의 물가 기여도는 1인가구 -0.7%p, 4인 및 5인 이상 가구 -0.8%p로 유사했다.

셋째, (가구주 연령별 영향) 40대 중년 가구는 교육비 물가, 60대 이상 고령 가구는 식료품 및 주류·담배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소비지출비중) 가구주연령 39세 이하 청년 가구는 교통·주거·오락문화, 40대 중년 가구는 교육, 50대 장년 가구는 음식숙박·통신, 60대 이상 고령 가구는 식료품·주거·보건 지출이 컸다. (물가상승률) 2015년 가구주 연령별 물가상승률을 추정한 결과, 39세 이하 및 40~49세 가구가 0.7%, 50~59세 가구가 0.6%, 60세 이상 가구는 0.8%로 분석되었다. 즉, 60세 이상 고령 가구의 물가상승률이 평균 대비 소폭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가구주연령별 물가상승률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최근 4개년 추이를 살펴봐도 전반적으로 60세 이상 가구가 직면하는 물가상승률이 평균 대비 높지만 그 차이는 0.1~0.2%p로 크지 않았다. (기여도) 40대 가구는 교육 물가, 60세 이상 가구는 식료품과 주류·담배 물가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물가 기여도는 전체 0.2%p, 60세 이상 이상 가구 0.3%p, 주류·담배의 물가 기여도는 전체 0.6%p, 60세 이상 이상 가구 0.8%p로 분석되었다. 교통의 물가 기여도는 가구주 연령별 격차가 0.1%p 내외로 크지 않았다. 한편, 교육의 물가 기여도는 40~49세 가구는 0.3%p인 반면, 여타 가구는 0.0~0.1%p에 불과해 가구주 연령별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 (2015년) > < 가구원수별 물가상승률 (2015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 이용).

■ 정리 및 시사점

최근 저물가 현상은 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이 저물가를 체감하고 소비 심리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첫째, 저물가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저소득층, 소형 가구 등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료품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비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중년 및 다인 가구에 대해 사교육비 책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시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공식 물가와 체감 물가 간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한국 가계의 소비 특성이 반영된 보다 다양한 소비자물가지수 개발이 필요하다.

1. 개요

○ 최근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소비자들의 가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음

- 2015년 이후 저물가 현상이 지속

-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로 통계 집계 상 가장 낮은 상승률 기록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0.8%, 2월 1.3%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 2.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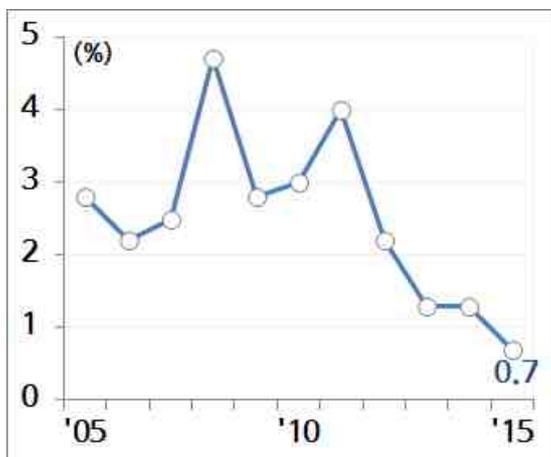
- 품목별 물가 움직임이 상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소득, 가구원수, 연령 등 가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2015년 소비자물가를 지출목적별로 살펴보면, 담배세 인상의 영향으로 '주류 및 담배' 부문은 50.1%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교통 부문은 -7.8%의 하락을 기록하는 등 상이한 모습
-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품목 종류, 구매 비중 등은 가계 특성별로 다르므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공식 물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가계 특성에 따라 소비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 저물가 현상이 가계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이를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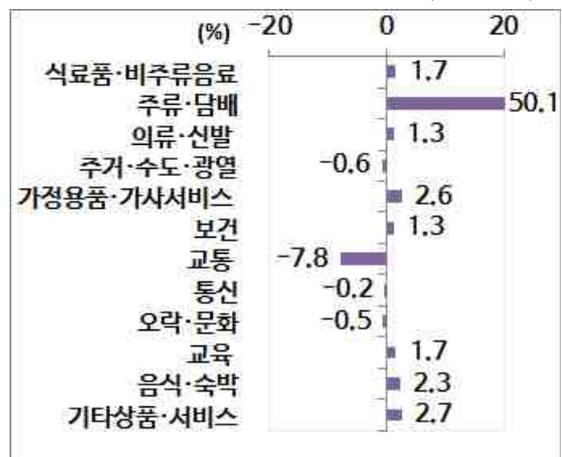
- 가계는 특성별로 소득분위, 가구원수, 가구주연령으로 구분하고 해당 가구가 직면하는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를 추정

<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상승률(2015년) >



자료 : 통계청.

2. 저물가의 가계 특성별 영향

1) 소득분위별 영향

○ (소비지출비중)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비, 통신비를,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교통비, 오락·문화비, 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

- 1분위 가구는 식료품, 주거, 보건, 통신 부문 지출 비중이 높고, 교육, 교통 지출 비중이 낮음

- 2015년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대비 높은 항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등 식료품과 주거·수도·광열, 보건, 통신 부문임
-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대비 낮은 항목은 교육, 교통, 음식·숙박 부문임

- 5분위 가구는 교통, 오락·문화, 교육 지출 비중이 높고, 식료품, 주거, 보건, 통신 지출 비중은 낮음

- 2015년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대비 높은 항목은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통, 오락·문화, 교육 부문임
-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대비 낮은 항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 통신 부문임

< 소득분위별 소비지출비중(2015년) >

(%)

	전체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식료품·비주류음료	13.8	20.0	15.6	14.3	12.9	11.3
주류·담배	1.3	1.9	1.7	1.4	1.2	0.9
의류·신발	6.3	4.6	5.8	6.3	6.4	7.0
주거·수도·광열	10.8	16.1	13.1	10.9	9.9	8.6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1	3.6	3.7	3.7	3.9	4.9
보건	6.8	10.3	7.2	6.6	6.6	5.8
교통	12.5	9.6	11.8	11.6	13.9	13.5
통신	5.8	6.4	6.7	6.2	5.6	4.9
오락·문화	5.8	4.5	5.2	5.6	5.8	6.8
교육	11.1	5.5	8.5	11.1	12.0	13.4
음식·숙박	13.2	10.7	13.1	13.6	13.6	13.6
기타상품·서비스	8.4	6.8	7.7	8.8	8.3	9.1

자료 : 통계청.

○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 추정) 소득이 많을수록 저물가의 수혜를 크게 받았으며, 반면 저소득층의 물가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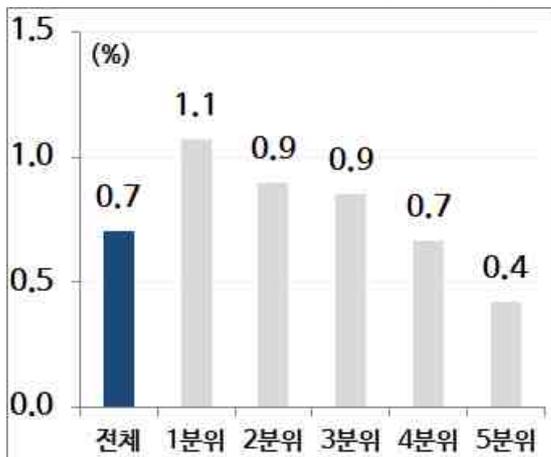
- 가계동향조사의 2012년 소비지출비중을 이용해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을 추정¹⁾

- 현행 소비자물가는 2012년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 및 물가상승률을 계산
-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기준에 따라 2012년 가계동향조사(전국, 2인 이상 가구, 명목)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가중치를 계산

- 2015년 1분위 가구가 직면한 물가상승률이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물가상승률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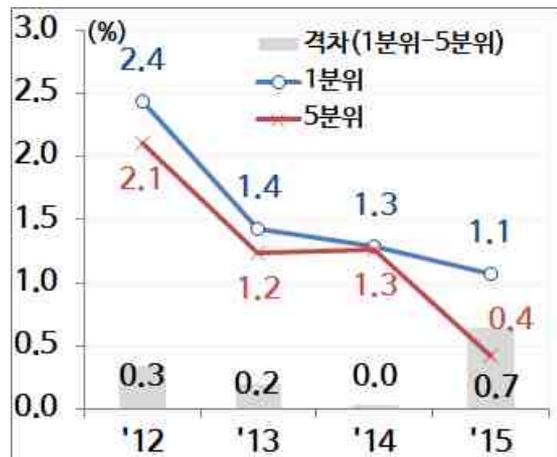
- 2015년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을 추정한 결과, 1분위 1.1%, 2분위 0.9%, 3분위 0.9%, 4분위 0.7%, 5분위 0.4%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0.7%와 차이
- 즉, 소득이 높을수록 직면하는 물가상승률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
- 최근 4개년²⁾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분위 가구가 직면하는 물가상승률이 5분위 대비 높은 가운데, 1분위와 5분위간 물가상승률 격차가 2014년 0.0%p에서 2015년 0.7%p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2015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 이용).

<소득 1분위와 5분위 물가상승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 이용).

1) [별첨] 참조.

2) 가중치 기준년도가 2012년이기 때문에 2012년 이후의 물가상승률 추이만 고려함.

○ (소득분위별 물가 기여도)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주류·담배와 식료품 물가 상승 영향을,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교통 물가 하락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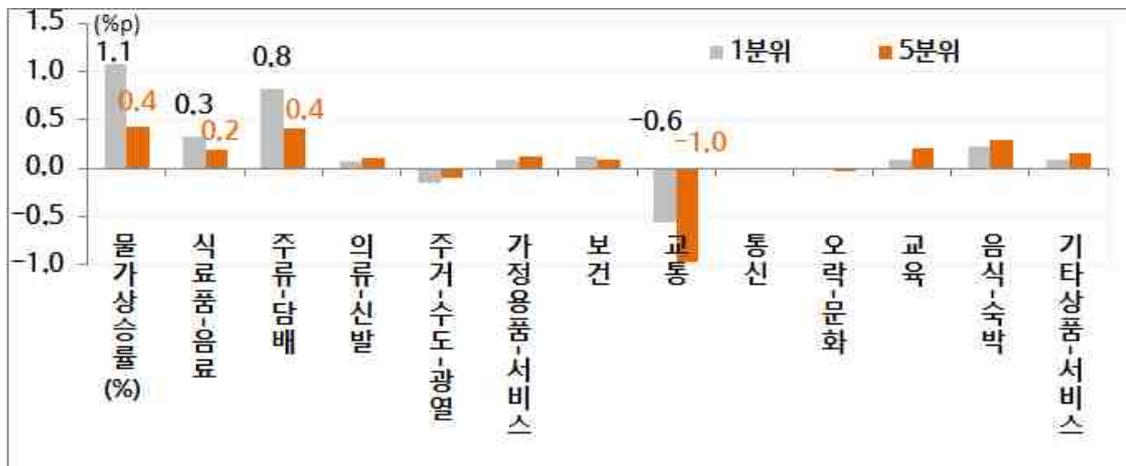
- (절대적 기여도) 2015년 소득분위별 물가에 공통적으로 크게 기여한 부분은 주류·담배와 교통 부문임

- 2015년 주류 및 담배의 물가 기여도는 1분위 0.8%p, 2분위 및 3분위 0.7%p, 4분위 0.5%p, 5분위 0.4%p로 물가 상승에 공통적으로 크게 기여
- 2015년 교통의 물가 기여도는 1분위 -0.6%p, 2분위 및 3분위 -0.8%p, 4분위 -0.9%p, 5분위 -1.0%p로 물가 하락에 공통적으로 크게 기여
- 2015년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소득분위별 물가 기여도는 0.2~0.3%p, 음식 및 숙박의 소득분위별 물가 기여도는 0.2~0.3%p로 나타났으며, 언급된 항목을 제외한 부문의 물가 기여도는 -0.1~0.1%p로 낮은 수준

- (상대적 기여도) 1분위 가구 물가에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주류·담배와 식료품이고, 5분위 가구는 교통 물가 하락 영향을 크게 받음

- 여타 항목들은 소득분위별 물가 기여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주류 및 담배의 물가 기여도는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0.4%p로 큰 차이를 보임
- 교통의 물가 기여도 역시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0.4%p로 큰 차이를 보이며 소득분위별 물가 차이를 견인
-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물가 기여도는 3~5분위가 0.2%p인데 비해 1~2분위는 0.3%p로 소폭 높음

< 소득분위별 물가 기여도(2015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 이용).

2) 가구원수별 영향

○ (소비지출비중)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일수록 식료품비·주거비·보건비에,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통신·교육비에 더 많이 지출

- 1~2인 가구는 식료품, 주거, 보건 부문 지출 비중이 높고, 교육, 통신 지출 비중이 낮음

- 2015년 1인 및 2인 가구의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대비 높은 항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등 식료품과 주거·수도·광열, 보건 부문임
- 1인 및 2인 가구의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대비 낮은 항목은 통신, 교육, 음식·숙박 부문임

- 4인 및 5인 이상 가구는 통신, 교육 부문 지출 비중이 높고, 식료품, 주거, 보건 부문 지출 비중은 낮음

- 2015년 4인 및 5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대비 높은 항목은 통신, 교육 부문이며, 특히 교육 부문 비중이 여타 가구 대비 매우 높음
- 4인 및 5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대비 낮은 항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등 식료품과 주거·수도·광열, 보건 부문임

< 가구원수별 소비지출비중(2015년)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식료품·비주류음료	14.0	15.3	16.2	13.6	12.8	13.0
주류·담배	1.3	1.7	1.6	1.3	1.1	1.2
의류·신발	6.2	5.7	6.0	6.6	6.4	5.9
주거·수도·광열	11.8	19.4	13.7	10.9	9.3	10.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1	3.7	4.4	4.2	4.1	3.2
보건	7.1	9.0	9.7	6.5	5.6	6.0
교통	12.4	11.0	12.4	13.2	12.4	11.6
통신	5.6	4.5	5.3	6.1	5.6	6.3
오락·문화	5.8	5.8	5.5	5.9	6.1	5.5
교육	10.0	2.1	3.7	8.9	15.4	16.4
음식·숙박	13.2	12.5	12.7	13.9	13.3	12.5
기타상품·서비스	8.5	9.1	8.8	9.0	7.9	8.0

자료 : 통계청.

○ (가구원수별 물가상승률 추정)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저물가의 수혜를 크게 받았으며, 반면 1인 가구의 물가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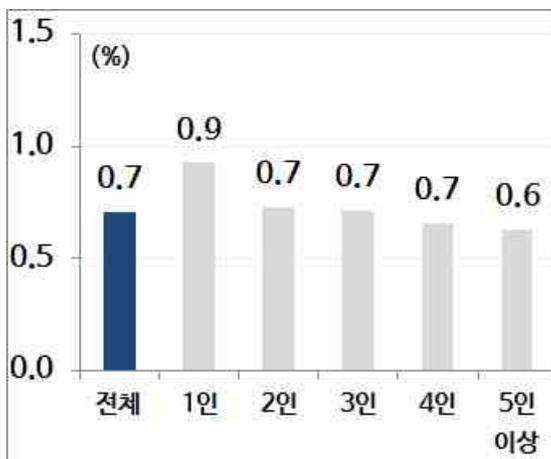
- 가계동향조사의 2012년 소비지출비중을 이용해 가구원수별 물가상승률을 추정³⁾

- 현행 소비자물가는 2012년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 및 물가상승률을 계산
-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기준에 따라 2012년 가계동향조사(전국, 1인 이상 가구, 명목)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가중치를 계산

- 2015년 1인 가구가 직면한 물가상승률은 다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물가상승률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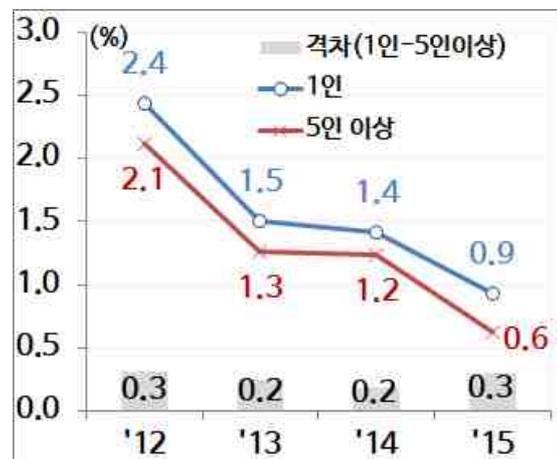
- 2015년 가구원수별 물가상승률을 추정한 결과, 1인 가구 0.9%, 2~4인 가구는 0.7%, 5인 이상 가구는 0.6%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0.7%와 차이
- 즉,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직면하는 물가상승률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
- 최근 4개년⁴⁾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인 가구가 직면하는 물가상승률이 5인 이상 가구 대비 높은 가운데, 1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간 물가상승률 격차는 0.2~0.3%p 수준을 유지

<가구원수별 물가상승률(2015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 이용).

<1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의 물가상승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 이용).

3) [별첨] 참조.

4) 가중치 기준년도가 2012년이기 때문에 2012년 이후의 물가상승률 추이만 고려함.

○ (가구원수별 물가 기여도 추정)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는 주류·담배,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는 교육 물가 상승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교통 물가 하락 영향은 유사

- (절대적 기여도) 2015년 가구원수별 물가에 공통적으로 크게 기여한 부분은 주류 및 담배와 교통 부문임

- 2015년 주류 및 담배의 물가 기여도는 1인 가구 0.8%p, 2인 가구 0.7%p, 3인 가구 0.6%, 4인 및 5인 이상 가구 0.5%p로 물가 상승에 공통적으로 크게 기여
- 2015년 교통의 물가 기여도는 1인 가구 -0.7%p, 3인 가구 -0.9%p, 2인, 4인 및 5인 이상 가구는 -0.8%p로 물가 하락에 공통적으로 크게 기여
- 2015년 식료품·비주류음료의 가구원수별 물가 기여도는 0.2~0.3%p, 음식 및 숙박의 가구원수별 물가 기여도는 모두 0.3%p로 나타났으며, 언급된 항목을 제외한 부문의 물가 기여도는 -0.1~0.1%p로 낮은 수준

- (상대적 기여도) 1인 가구의 물가상승률에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주류 및 담배이고, 4인 및 5인 이상 가구는 교육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주류 및 담배의 물가 기여도는 4인 및 5인 이상 가구가 각각 0.5%p인데 반해 1인 가구는 0.8%p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의 물가 기여도는 1인 가구 0.0%p, 2인 및 3인 가구 0.1%p인데 반해 4인 및 5인 이상 가구는 각각 0.3%p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원수별 물가 기여도(2015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 이용).

3) 가구주 연령별 영향

- (소비지출비중) 가구주연령 39세 이하 청년 가구는 교통·주거·오락문화, 40대 중년 가구는 교육, 50대 장년 가구는 음식숙박·통신, 60대 이상 고령 가구는 식료품·주거·보건 지출이 큼
- 가구주연령 39세 이하 가구는 교통·주거·오락문화 지출 비중이 높고, 식료품·보건·교육 부문 지출 비중은 낮음
 - 2015년 가구주연령 39세 이하 가구의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대비 높은 항목은 교통,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오락·문화 부문임
 - 39세 이하 가구의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대비 낮은 항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과 교육 부문임
- 40대 가구는 교육 부문 지출 비중이 다른 부문보다 월등히 높으며, 50대 가구는 음식·숙박, 통신 지출 비중이 다른 부문보다 월등히 높음
 - 2015년 가구주연령 40대 가구의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대비 높은 항목은 교육이 유일하고 평균 대비 낮은 항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교통 부문임
 - 2015년 가구주연령 50대 가구의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대비 높은 항목은 의류·신발, 음식·숙박, 통신이며, 평균 대비 낮은 항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 교육, 보건 부문
- 60세 이상 가구는 식료품과 주거, 보건 부문 지출 비중이 높고, 위 3개 항목을 제외한 여타 부문 지출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
 - 2015년 가구주연령 60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대비 높은 항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 부문으로 비중이 여타 가구 대비 매우 높음
 - 60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대비 낮은 항목은 의류·신발, 통신, 교육, 오락·문화, 음식·숙박 부문이며, 특히 교육 부분 지출이 여타 가구 대비 매우 낮음

< 가구주연령별 소비지출비중(2015년) >

(%)

	전체 평균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식료품·비주류음료	13.8	12.4	12.8	13.2	18.9
주류·담배	1.3	1.3	1.1	1.4	1.5
의류·신발	6.3	6.6	6.3	6.6	5.5
주거·수도·광열	10.8	11.3	9.2	10.7	14.1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1	4.6	3.8	3.9	4.5
보건	6.8	6.0	5.7	6.4	10.9
교통	12.5	15.0	10.9	12.5	13.2
통신	5.8	5.7	5.6	6.4	5.2
오락·문화	5.8	6.7	5.9	5.5	5.0
교육	11.1	7.7	17.9	10.0	1.6
음식·숙박	13.2	13.6	13.2	14.4	11.1
기타상품·서비스	8.4	9.0	7.7	8.9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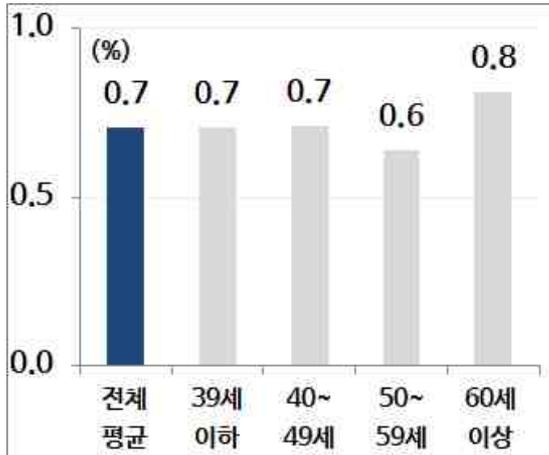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가구주연령별 물가상승률 추정) 60세 이상 고령 가구의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가구주연령별 물가상승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
- 가계동향조사의 2012년 소비지출비중을 이용해 가구주연령별 물가상승률을 추정⁵⁾
 - 현행 소비자물가는 2012년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 및 물가상승률을 계산
 -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기준에 따라 2012년 가계동향조사(전국, 2인 이상 가구, 명목)를 기준으로 가구주연령별 가중치를 계산
- 2015년 60세 이상 가구의 물가상승률이 평균 대비 소폭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가구주연령별 물가상승률은 큰 차이가 없었음
 - 2015년 가구주연령별 물가상승률을 추정한 결과, 39세 이하 및 40~49세 가구가 0.7%, 50~59세 가구가 0.6%, 60세 이상 가구는 0.8%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0.7%와 차이

5) [별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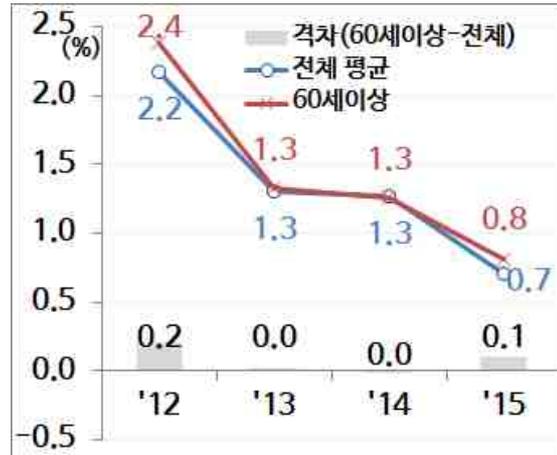
- 최근 4개년⁶⁾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60세 이상 가구가 직면하는 물가상승률이 평균 대비 높지만 그 차이는 0.1~0.2%p로 크지 않음
- 즉, 가구주연령별 직면하는 물가상승률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

<가구주연령별 물가상승률(2015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 이용).

<가구주연령 60세 이상 가구의 물가상승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 이용).

○ (가구주연령별 물가 기여도 추정) 가구주연령 40대 중년 가구는 교육비 물가, 60세 이상 고령 가구는 식료품 및 주류·담배 물가 상승 영향을 크게 받음

- (절대적 기여도) 2015년 가구주연령별 물가에 공통적으로 크게 기여한 부분은 주류 및 담배와 교통 부문임

- 2015년 주류 및 담배의 물가 기여도는 39세 이하 및 50~59세 가구 0.6%p, 40~49세 가구 0.5%p, 60세이상 가구 0.6%로 물가 상승에 공통적으로 크게 기여
- 2015년 교통의 물가 기여도는 39세 이하 및 50~59세 가구 -0.9%p, 40~49세 및 60세이상 가구 -0.8%p로 물가 하락에 공통적으로 크게 기여
- 2015년 식료품·비주류음료의 가구주연령별 물가 기여도는 0.2~0.3%p, 음식 및 숙박의 가구주연령별 물가 기여도는 0.2~0.3%p로 나타났으며, 언급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가 기여도는 -0.1~0.1%p로 낮은 수준

6) 가중치 기준년도가 2012년이기 때문에 2012년 이후의 물가상승률 추이만 고려함.

- (상대적 기여도) 가구주연령 40대 가구는 교육 물가, 60세 이상 가구는 식료품과 주류·담배 물가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음
 -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물가 기여도는 전체 0.2%p인데 반해 60세 이상 가구는 0.3%p로 상대적으로 소폭 높게 나타남
 - 주류 및 담배의 물가 기여도는 전체 0.6%p인데 반해 60세 이상 가구는 0.8%p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교통의 물가 기여도는 가구주연령별 격차가 0.1%p 내외로 크지 않았음
 - 한편, 교육의 물가 기여도는 40~49세 가구는 0.3%p인 반면, 여타 가구는 0.0~0.1%p에 불과해 가구주 연령별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가구주연령별 물가 기여도(2015년)⁷⁾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 이용).

7)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가구는 전체 평균과 거의 유사함. 이에 60세 이상 가구는 특정 연령대가 아닌 전체 평균과 비교함.

3. 정리 및 시사점

○ (정리) 최근 저물가 현상은 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

- 2015년에 소득이 많거나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는 교통 부문 지출이 높아 저물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

-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은 1분위 가구 1.1%, 5분위 가구 0.4%로 소득이 많을수록 직면하는 물가상승률이 낮았음
- 가구원수별 물가상승률은 1인 가구 0.9%, 5인 이상 가구 0.6%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직면하는 물가상승률이 낮았음
- 1분위 및 1인 가구는 식료품, 5분위 및 5인 이상 가구는 교통 소비 비중이 높았는데, 2015년 식료품 물가는 1.7% 상승한 반면 교통 물가는 -7.8% 하락했기 때문

- 가구주 연령별 물가상승률에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40대 중년 가구는 교육, 60대 이상 고령 가구는 식료품 등 주요 지출 항목의 물가 영향을 크게 받았음

○ (시사점) 소비자들이 저물가를 체감하고 소비 심리 개선을 이끌어 저물가에 따른 소비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저물가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저소득층, 소형 가구 등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료품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최근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공급측 하방요인이 두드러지며 교통 및 주거의 연료비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 하락을 견인했으나, 저물가에 따른 혜택은 고소득층, 다인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

- 저소득층, 1인 가구, 고령 가구의 저물가 체감을 위해서는 식료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산물 계약재배 물량 확대, 대규모 출하

시설 건설 등 가격 안정성을 도모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할 필요

둘째, 교육비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중년 및 다인 가구에 대해 사교육비 책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시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2015년 교육 부문 물가는 1.7%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세부 항목별로 보면 유치원납입금 7.7%, 학원비(중학생) 3.0%, 학원비(고등학생) 2.6%, 취업 학원비 2.7% 등 사교육 물가는 상승세
- 공공기관, 기업체 등 직장보육시설 확충, 학원비 불법·편법 인상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사교육 관련 물가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교육개혁 혁신 등을 통해 사교육의 필요성을 경감할 필요

셋째, 공식 물가와 체감 물가 간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한국 가계의 소비 특성이 반영된 보다 다양한 소비자물가지수 개발이 필요하다.

-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보조지표로 생활물가지수,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 채소·과실·생선 등을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 등을 공표하고 있으나 가계 특성을 반영한 지수는 부재한 상황
- 공식 물가와 괴리되는 높은 체감 물가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지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물가지수를 개발할 필요 **HRI**

백다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별첨】 추정 방법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수 기준연도 2010=100, 가중치 2012년을 기준으로 한 가중산술평균 방식임

-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 및 서비스 481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2012년을 기준으로 한 가중산술평균 방식(=라스파이레스(Laspeyres) 산식)
- 가중치는 2012년 전국가구(농·어가 제외) 월평균 소비지출총액에서 각 품목의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 단, 가중치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비지출총액($\sum(P_i^{2012} Q_i^{2012})$)은 가계동향자료상의 소비지출액에서 전세금 및 보증금평가액, 기타의제주거비 및 중고차구입비를 반영한 조정 금액⁸⁾⁹⁾을 사용하고 있음

- 현행 소비자물가지수 산출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물가상승률을 산출하되, 가중치는 2012년 가계동향자료를 기준으로 가계 특성별 소비지출비중에 따라 상이한 가중치를 적용

- 현행 소비자물가지수 산출에 사용되는 라스파이레스방식에 따라 개별 항목의 물가지수를 가중치 연도의 소비 비중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계산

$$L_{2012,t}^{2012=100} = \frac{\sum(P_i^t Q_i^{2012})}{\sum(P_i^{2012} Q_i^{2012})} \times 100 = \sum W_i (P_i^t / P_i^{2012}) \times 100,$$

$$W_i^{2012} = \frac{(P_i^{2012} Q_i^{2012})}{\sum(P_i^{2012} Q_i^{2012})}$$

P: 가격, Q: 수량, W: 가중치, 2012: 기준년도, t: 비교년도, i: 품목

- 자료는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와 동일한 2012년 가계동향자료(전국, 1인 이상 가구, 명목)를 사용하되, 소득분위 및 가구원연령별 자료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함
- 단, 가계특성별로 다른 가중치를 계산하려면 가계동향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기타의제주거비, 중고차구입비, 전세금 및 보증금평가액이 필요한데,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연보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함¹⁰⁾

8) 소비지출총액($\sum(P_i^{2012} Q_i^{2012})$) = 소비지출액 - 기타의제주거비 - 중고차구입비 일부 + 전세금 및 보증금 평가
= 2,156,687원 - 21,776원 - 12,613원 + 165,697원 = 2,287,995원

9)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연보 해설자료에서는 이를 ‘가중치 모집단’이라는 용어로 사용.

10) (주석 8)을 기준으로 기타의제주거비는 소비지출액의 1.0%, 중고차구입비 일부는 소비지출액의 0.6%, 전세금 및 보증금 평가액은 소비지출액의 약 7.2%를 적용함.